



융합연구소식지
52호
2020. 7. 28.

Transdisciplinary Research Newsletter

융합연구소식지 | 제 52호 | 2020년 7월 28일 | 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 268 건국대학교 GLOCAL 캠퍼스 교수연구동(K3) 지식콘텐츠연구소 209호 | 발행인 노영희 | 발행처 융합연구총괄센터

융합 EVENT

□ 2020 융합연구 심포지엄 성료



융합연구총괄센터(센터장 건국대 노영희 교수)는 2020년 7월 23일 「2020 융합연구 심포지엄」을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의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통해 성황리에 진행하였다. 심포지엄은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의 브랜드 사업화를 통한 정책적 지원 획득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받았다.

노영희 융합연구총괄센터 센터장은 개회사를 통해 다양한 영역의 경계를 아우르는 융합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희현 한국연구재단 문화융복합단 단장은 환영사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하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성결대 라희문 교수의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의 성과와 지원'과 건국대 박창규 교수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연구 브랜드 사업화의 지향점'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의 브랜드 사업화를 주제로 종합토론이 개최됐다. 제15대, 16대 전북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좌장 서거석 교수를 필두로 최희윤 KISTI 원장, 허승욱 단국대 교수, 조재원 UNIST 교수, 박충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심포지엄 녹화방송은 융합연구총괄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원문으로 이동: 내일신문

https://www.naeil.com/news_view/?id_art=356772

융합연구학회소식

□ 융합연구학회 정기총회 개최에 앞서 회원정비



융합연구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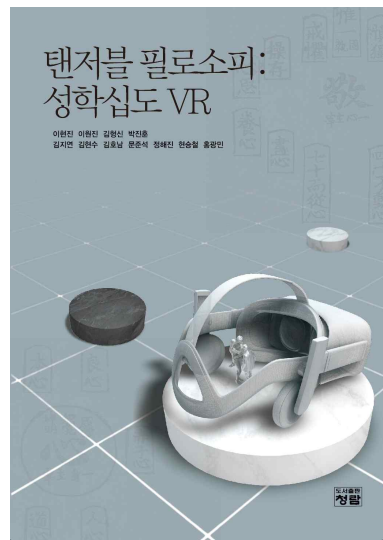
The Society for Transdisciplinary Studies

융합연구학회(학회장 노영희)는 다가오는 정기총회를 앞두고 융합연구학회의 회원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번 정기총회는 줌(ZOOM) 온라인 화상회의의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차기 학회장의 선출을 비롯하여 융합연구학회의 기타사업 안건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존에 한국연구재단 온라인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융합연구학회 홈페이지(<https://jts.jams.or.kr/>)의 공지사항에 첨부된 회원 신청서를 작성해서 7월 29일 수요일 18:00시까지 융합연구학회 메일(jicr.kcdt@gmail.com)로 송부하면 된다.

학회장인 노영희 교수는 ‘부디 이번 회원 재정비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원 재정비가 완료되어야 추후 정기총회 개최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부디 융합연구자 여러분의 넓은 아량과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하였다.

융합 ISSUE & TREND

□ 연세대 성학십도 융합연구팀 저서 출간



〈성학십도 VR〉 연구는 2017년 한국연구재단의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의 새싹형 연구의 지원을 받아 시작되어 지난 3년간 퇴계 이항의 성학십도(聖學十圖)를 VR로 구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열 한 명의 저자가 참여하여 총 아홉 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연구서는 퇴계 이항의 성학십도(聖學十圖)에 담긴 철학적 개념과 이야기를 어떻게 현대의 VR 기술로 재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와 더불어, VR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대두된 VR 인터페이스 디자인, 플레이 경험, 2D 및 3D 공간의 시점, 사운드 연출 등에 대해 다룬다. 연구팀은 연구 과정에서 다수의 퇴계 철학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VR 테크 기업 (주)룩시드랩스와 (주)어셈피아 등과 MOU를 맺으며 연구의 완성도와 엄밀함을 높여왔다. 연구책임자 이현진 교수는 “우리 연구팀은 VR의 인문학적 가능성을 3년 전부터 탐구해 왔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 VR은 뉴노멀 환경 속의 시대적 매체로 전환되고 있다”며 “〈성학십도 VR〉을 통해 조선 성리학이 풀어진 생태적 세계관을 ‘K-철학’이란 이름 하에 세계에 새로운 화두로 던질 수 있을지 기대한다”고 말했다.

